

# 광주 도심공원 21곳 치유 공간으로

### 市, 12월까지 '시민참여 도시공원 프로그램' 운영 11개 민간단체, 텃밭 가꾸기·전통놀이 체험 등 선보여

광주시가 시민들이 봄·여름·가을 시즌 내내 도심 공원 곳곳에서 건강·여가·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민이 도심 공원에서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도심 공원 특성에 맞게 자체 기획한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을 공모했으며, 지난 3월 자체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21개 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사)광주생명의숲'은 풍암체육공원 등 5개 공원에서 '지구를 살리GO, 미세먼지 잡GO'라는 주제로 탄소운동 실천으로 1회용 컵을 활용한 화분만들기, 이끼를 활용한 실

내 공기정지기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한새봉두레'는 일곡지구 일곡근린공원 등 4개 공원에서 '한새봉 자연생태학교'라는 주제로 일곡공원 숲길을 따라 걸으며 나무·풀꽃·새들을 관찰하는 숲길탐험대를 운영한다. 다양한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다룬 사계절 다랭이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사)푸른길'은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푸른길공원에서 '공원의 유래와 테마'로 푸른길 숲해설과 경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한국예술문화연합회'는 첨단중앙공원에서 '공원에서 놀자'를 주제로 오감체험, 모자·나무목걸이 만들기, 공예체험, 팔찌만들기, 꽃차 및 드립커피시음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는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밭줄놀이, 자연물공예, 미술체험, 전통놀이( 제기, 투호놀이)를 제공한다.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영산강대상공원 광주시민이숲 등 5개 공원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걷기체험과 원예토퍼리 만들기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 등 5개 단체에서 용산체육공원, 봉선1공원, 유안공원, 신가2공원 등을 중심으로 천연수세미, 천연 입욕제 만들기, 세제만들기, 전통놀이, 단체줄넘기, 봉송아 물 들이기, 꽃만지, 꽃떡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도심공원에서 가족·유아·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지난해까지 시민 5285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며, 체험일정과 참여방법 등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훈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나섰다

### 강기정 시장, 14개국 23개 자매·우호도시에 지지 요청 친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우호 관계에 있는 세계 14개국, 23개 도시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4일 14개국, 23개 도시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최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특별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 대사관과 문화원, 자매·우호 도시 등을 모두 포함했다.

강 시장은 서한문에서 "2030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미래 문명을 선도할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준비된 도시인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산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강 시장은 비엔날레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도 부산 엑스포 취지와 강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이어지는 베트남-폴란드 등 주한 외교사절과의 만남에 이어 8월에는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연맹기 인수를 위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탬 계획이다. 강 시장은 "부산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커지는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 민간 구분 없이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총결집해야 한다. 광주가 가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세계박람회는 부산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 개최지 선정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17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2023년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 배달앱 '떡깨비' 매출 50억 돌파

### 9개월만에 누적 주문 20만 건...할인이벤트 등 효과

전남도가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 '떡깨비' 누적 매출액이 4월 초순 현재 5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9개월 만이다. 누적 주문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착한 소비 동참과 연내 '떡깨비' 누적 매출액 100억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할인이벤트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배달앱 떡깨비 출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경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 중개수수료는 1.5%로 민간배달앱(6.8~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소 2억6000만원 이

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매출 100억원 달성을 위해 현재 신규 회원 1만원 할인이벤트, 4월 한 달 동안 금·일요일 등 주말 주문고객 5천 원 할인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일 할인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난해 7월 전남형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입이력, 소비자는 착한 소비'라는 비전 아래 출시됐다"며 "떡깨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가입하면 최대 1만원

### '남도장터' 포인트 쿠폰 발급...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가능

전남 농축수산물 판촉을 위해 전남도가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로 가입하면 최대 1만원까지 '남도장터' 포인트 쿠폰을 발급하기로 했다. 서포터즈 가입 시 남도장터 가입에 동의한 사람은 누구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받게 되며,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쿠폰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남도장터는 전남의 대표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2004년 개설돼 지난해 60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전남도에서 재배 생산되는 과일, 채소, 육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지역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등 1826개의 업체가 입점돼 3만3217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남도장터는 4월 17일부터 시작하는 '남도장터에서 맛·나자!' 기획전을 통해 전 상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5월에는 '가정의 달 5월, 심봤다' 기획전을 연달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남도장터를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연계사업 및 판촉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라남도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 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도장터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설립하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신청하세요

### 19~28세 6월까지...학원 수강·도서 구입 등 年 20만원 지원

전남도가 청년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발전 기회를 지원하는 '20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5~2004년 출생자) 청년이다. 1인당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며 올해 2월 신청자는 제외된다.

청년에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통해 전남 정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시 지역 거주자는 광주는

행, 군 지역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6월 이후 체크카드로 순차 발급된다. 전남지역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아 자기계발과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에 활용, 삶의 질을 높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www.kdn.com

광주일보 **기**

# 에너지로 사람을 밝힙니다





배려가 에너지가 될 순 없을까? 나눔이 에너지가 될 순 없을까?  
이 생각이 사회를 향한 한전KDN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밝히는 에너지CT기술,  
한전KDN이 시작합니다**



요양원 헬스케어 밴드 서비스



중소기업 무료 보안컨설팅



KDN 디지털 IT용 지원



지역 꿈나무 육성 로봇코딩교실



스마트 팜 운영